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3년도 표어 ☉

생명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 (롬14:17)

☉ 행동지침 ☉

- 1. 역사의 주권자를 보자
- 2. 임마누엘의 삶을 살자
- 3. 생명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 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소선지서 강해
-아모스서-

여름 과일 한 광주리

(아모스 8장 1 - 14절)

본문은 7장에 나온 세 가지 환상에 이어 광주리에 담긴 여름 실과에 관한 환상의 말 씀입니다.

1. 이스라엘의 끝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 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 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2절),

광주리는 이스라엘 국가를, 여름 실과 는 잘 익은 과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광주리에 가득 담긴 과일은 이스라엘 백성 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 죄가 무르 익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추수기에 하나님 께 풍성한 제물을 바쳤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추 수의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추수할 곡식을 허락하심을 감사하 는 절기 또한 기쁨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추수하며 오히 려 애통하고 안타까워하는 자리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름 과일은 히브리어로 ‘카이스’라고 읽으며 끝이 가까웠다는 말을 ‘케스’라고 합니다. 발음이 거의 비슷합니다. 아모스는 무엇 을 보았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과일을 보았다고 했고 하나님은 끝이 가까웠다고 하셨습니다. 아모스가 본 여름 과일 환상은 이스 라엘의 끝을 의미한 것입니다.

오스왈드 스펡글러의 ‘서구의 몰락’이란 책은 자연의 원리를 따라서 역사를 이해한 책입니다. 스펡글러는 모든 것에 생명이 있고 성장기와 쇠퇴기를 거쳐 죽음에 이른다 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에 적용이 되어 식물이나 사람이나 문화가 다 그렇다는 것입 니다. 그래서 그는 찬란한 서구의 문명도 쇠퇴기를 거쳐 마지막에는 소멸이 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 역사는 자연의 원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죄의 문제로 역사를 섭리하십니다. 한 국가든 개인이든 죄가 있을 때 타락이 오고, 타락함으로 인해 종말이 오게 됩니다. 결국 역사의 몰락은 죄 문제로 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주리에 담긴 여름 과일과 같이 끝이 오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이 그들 의 죄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의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이야 말을 들으라”(4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박한 것을 여러 번 말씀하시며 아마사 와 여로보암, 또 이스라엘의 여러 지도자들에게 공평과 공의를 호소하셨지만 그들은 가 난한 자를 학대했고 시장의 상행위를 불공평하게 했고 저열추를 속였습니다. 또 법정에서 공의가 시행되지 않아 약자에게 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 리가 밭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겔을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5절).

월삭은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는 절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월삭이 너무 길어서 언제 장사를 하겠느냐고 불평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일을 하지 못하니 안식일이 빨리 지나야 밭을 추수 하게 될 것이라고 하니 이들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살았던 것입니 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나가는 일이 기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곡식을 재는 에바를 속여서 돈을 호되게 받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켈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밭을 팔자 하느도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의 직접 계시는 없으나 우리에게는 성경 이 있습니다. 지금은 말씀이 없어서 기 근과 기갈을 당하는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넘쳐나고 있습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 에게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 다.

2. 죽음의 심판

“그 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에 땅을 캄캄하게 하며”(9절).

대낮에 해가 저서 캄캄하게 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태 양이 없으면 생물이 존재할 수 없으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곤고함이 오고 기뻐야 할 절기들이 오히려 애통하며 안타까운 일들은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10절).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11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말씀의 기갈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기근은 곡식이 추수가 안 되어 가난해지는 것이고, 기갈은 마실 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은 무엇인가를 먹고 마시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서 눈은 보아도 죽한 것이 없고 귀는 들어도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전 2:10). 인간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생명수를 마시지 못하니 이것은 무서운 저주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직접 계시는 없으나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 니다. 지금은 말씀이 없어서 기근과 기갈을 당하는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 씀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 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잡다한 지식은 앞 다투어 알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읽으려고 하 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말씀의 기근을 당하면 안 됩니다.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13절).

이같이 젊은 사람들이 갈하여 죽어 가는데 늙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마리아의 죄 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단아 네 신들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없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14절).

우상을 섬기며 우상에게 호소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들은 다 시는 없드러져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아모스의 예언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공의와 공평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8대 장로 후보 선출을 위한 임시 제직회

장로 선거 임박하다

우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여 온 8대 장로의 선거 일정과 선거규정이 당회를 통과하여 확정되었다.

이번에 선거를 통해 선출할 8대 장로는 10명으로 지난 5월6일(화)에 열린 서울강남노회 제32회 정기회에 청원하여 허락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먼저 오늘 찬양예배시간후에 임시 제직회를 열어 투표를 통해 20명의 최종후보를 확정하게 되며 다음 주일(5월 18일) 순례자에는 20명의 사진과 약력이 게재

된다. 그리고 일주일간 모든 성도들이 후보들을 위해 힘써 기도하고 난 후 5월 25일(주)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통해 장로를 선출하게 된다.

오늘자 순례자 3면에는 후보의 자격이 되는 안수집사 와 협동장로 시무권사의 명단이 게재되어 있어 임시 제직 회에서 투표 시 참고하면 되며 오늘 임시 제직회에 제직되는 모든 이들의 참여가 요청된다. 모든 제직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여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한다.

로마서 종강 감사의 모임 지난 10일(토)에 8층 만나 홀에서

지난 10일 토요일 오후 5시, 8층 만나 홀에서는 참으로 뜻 깊은 행사가 당회원 부부들과 교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바로 지난 98년 6월28일부터 2003년 3월30일 까지 5년간 주일저녁 찬양예배 시간 중에 계속되어온 로마서 강해 종강을 기념하고 이종운 목사님의 수고에 감사하는 감사의 모임이었다. 로마서 총평하는 한마디를 뽑은 결과 1등에 박우주 권사(로마서는 신무기다. 말씀과 기도의 장이기 때문), 2등 임훈규 장로(로마서는 보석가계와 같습니다. 주옥과 같은 말씀이 가득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종운 목사님은 보석을 무상으로 주시는 고마우신 사장님입니다.) 3등 하영수 장로(로마서 강해는 로맨서-로맨스-다. 왜냐하면 삼년간이나 변함없이 뜨겁게 계속된 사

랑이야기니까...)가 선정되었다.

한편 지난주일 찬양예배부터는 새로이 '아가서 강해'가 시작되었다.



로마서 강해 종강을 감사하는 모임. 1998. 6. 28 ~ 2003. 3. 30 감사: 이종운 목사님

부모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리연(초등부4학년)

아버지 어머니께 부모님의 은혜도 모르고 살다가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의 은혜를 떠올려 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참 행복해요. 저를 낳아주시고 정성스럽게 길러 주시고 훌륭하게 키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모님이 더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게 노력할게요.
- 엄마 위례양도 빨리 낳기를 기도할게요.
- 컴퓨터 게임을 너무 하고 싶어서 엄마 속 많이 상하게 한 것 죄송해요.
- 동생들하고 매일 싸우기만 해서 죄송해요. 기도해 주세요.
- 이리연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로 살겠어요.
- 엄마! 아빠! 사랑해요.



박수연(초등부5학년)

엄마, 아빠께
엄마, 아빠 지금 교회 안다니시는 것이 조금은 섭섭해요. 서울교회에 한 번이라도 나와 주세요. 아버지날을 맞이하여 기도 열심히 할게요. "엄마, 아빠 교회 꼭 다니게 해 주세요"라고요 나중에 늙어서까지 엄마 아빠가 교

회 다니실 때까지 기도할게요.
하나님은 엄마, 아빠가 교회에 오기를 원하세요. 이모 말씀에 제가 있는 이유는 엄마, 아빠를 꼭 교회로 모셔서 전도하라고 있는 것이라요. 엄마 아빠께서 힘드신 것은 알고 있지만 저랑 같이 엄마, 아빠께서 같이 즐겁게 교회에 다녔으면 해요. 아침에 빨리 일어나신 김에 저랑 함께 교회가요. 다른 것은 별로 필요 없어요. 엄마, 아빠만큰은, 꼭 알겠죠? 엄마, 아빠 꼭 교회 다니세요.
아버지날, 축하드려요.

다시 만난 아버지 유명의 집사(13교구)

2000년 4월 아버지는 작은 가방을 메시고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염증이 있는 것 같이라며 이왕이면 깨끗이 치료를 해야 개운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차를 타고 한강 강변의 숲아오르는 새싹과 나뭇잎을 보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새삼 이야기했습니다. 강은 언제까지나 평화스럽게 흐를 것 같았고 연둣빛 일새는 날로 그 푸름을 더하겠지요.

그러나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이 사람이라고 병원에 도착하고 시골에서 찍은 사진과 새로 병원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던 의사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 표정을 보고 있는 우리의 불안도 덩달아 높아졌습니다.

나중에 나온 결과는 위암 4기로 수술을 못하고 그냥 배를 밟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사람

오늘은 아버지 주일

오늘은 아버지 주일로 각 교회학교에서 주일에 오시는 부모님께 꽃을 달아드리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다. 지난 7일 수요일에는 70인 전도대와 뽀뽀 여전도회가 함께 우리교회와 자매결연한 대치역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대상으로 노방전도를 하며 그중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꽃을 달아드리는 행사를 가진 바 있다. 오늘 하루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도록 한다.



가족찬양대회

가족찬양대회가 이번 주로 다가왔습니다. 찬양이 흘러넘치는 가정보다 더 축복된 가정이 어디 있을까요?

그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한 찬양을 통해 함께 모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들이 찬양이 넘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 지정곡: 찬송가 305장, 408장, 434장 곡중 1곡
- 자유곡: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중 1곡
- 참가대상: 가족, 한 두 가족연합, 다락방 가족
- 대회장소: 웨스트민스터 홀(101호)
- 시간: 5월 16일 오후 7시

이 죽는다는 사실을 가슴으로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아 이불을 뒤집어쓰고 껍 껍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돌아가신다니?' 그 많은 죽음을 보아왔 으면서도 나오는 상관이 없는 너무나 거리가 멀게 느꼈던 죽음이었습니다. 그걸 40살이 넘어서 깨달은 저는 그저 어 리석기만 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무척이나 침착했습니다. 겨우 교회 나가시고 2달 정도 밖에 안되었는데 사람의 목숨은 하나님 손에 속했으니 수선스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도대체 무엇을 해드렸으며 어떤 딸이었 을까 생각이 미치자 모든 게 후회와 잘못의 연속이었습니다. 산다는 것이 이렇게 짧은데 그동안 얼마나 동동거리며 무엇인가 움켜쥐려고 바쁘다는 핑계로 신경을 쓰지 못한 저의 이기적인 생활을 회개했습니다.

어렸을 때, 시골의 집 마루에 누워 아버지는 하늘의 별 을 보며 정치의 야사와 역사의 흐름을 곧잘 이야기 해주셨 습니다. 저는 그것을 들으며 꿈을 키웠는데 이제 제가 그때 의 아버지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 앞에서는 불평을 하는 어린 딸이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아버지는 지금까지 건강하시며 주일 성수도 잘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다행히 하셨습니다. 더 큰 믿음을 주시어,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 지 충성하시며 저는 효도하는 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유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번 어려움을 통해 부모님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 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 아빠
나소정(청년부)**



해묵은 연하장부터 온갖 잡동사니를 담은 박스들을 정리하다가 아빠의 수첩들을 발견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투병 말기, 말을 할 수 없어졌을 때 간신히 적어 내려간 메모들이었다. 수 권은 족히 넘는 기도노트와 때에 전 포켓성경들, 정연한 아빠의 글씨가 아직도 선연한 수첩들은 생전에 정리하신 듯 차곡차곡 포개어져 있었다. 빼곡하게 옮겨 적은 메모들, 일상의 짧은 단상이나 한 줄 짜리 기도, 교회와 학교의 대소사들이 적혀있고, 대부분은 이종윤 목사님의 주일설교를 꼼꼼하게 받아 적은 것들이었다. 개중에는 아빠가 즐겨 부르시던 찬송가 85장의 가사 전문이 정서되어 있기도 했다. 또 우리 남매를 위한 기도와 자녀교육과 가정을 위한 말씀들을 목상한 메모도 있었다.

아빠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거기 어디쯤 미리 준비라도 하셨듯 꼭 알맞은 답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아빠가 미리 써놓은 편지 같은 메모에 뒤늦게 답장을 써 보기도 하였다. 아직까지 아빠를 떠올릴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엄마 때문에 수첩은 내 서재에 꼭꼭 숨겨두고 있지만, 사실 수첩은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남겨두고 가신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저녁 식사 후 앉은뱅이책상에 앉아 돌보기를 걸치고 무엇인가를 적어내려 가시던 아빠의 모습은 아직도 생생하다. 그 때는 그저 익숙한 풍경이어서 잘 몰랐지만, 수첩으로 만나는 아빠는 내가 아는 그 어떤 모습보다도 자랑스럽고 한편으로는 어렵다. 나는 아빠의 마음에 이토록 뜨겁고 간절한 고향이 있는 줄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 가족들에게 보여주셨던 자상하고 따뜻한 아빠의 모습 뒤에, 이렇게 남몰래 조용히 오랫동안 기도하고 묵상하는, 어쩌면 청년 같은 모습이 있을 줄은. 언제부터인가 나는 아빠가 그렇게 열망하고 바라시던 천국으로 가신 것에 대해 좀 더 편안한 생각을 갖게 되었다.

별써 4년이 지나갔다. 아빠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크고 자주 마음이 아픈 것이었다. 보고픈 마음은 4년이라는 시간도 무색하게 하루 같기도 하다. 특히 새삼 가족간의 사랑과 그리움이 크게 밀려오는 오월에는 자꾸 아빠의 수첩을 열어보게 된다.

올해 어버이날에는 아빠가 계신 천안에 다녀왔다. 카네이션 꽃다발을 한 아름 안아들고서.

아빠의 마지막 침상에서 우리가 약속했던 다짐들, 아빠가 곁에 늘 계신 것처럼 살겠다고 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새기며 돌아왔다. 아빠의 수첩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처럼, 순종, 실천, 믿음, 감사... 아빠가 가슴으로 적어내려 간 그 믿음의 기록들을 지금 내 삶의 지표로 삼고 또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또 한분의 부모님... 할머니

오혜진(청년부)

할머니...
저에게 할머니는 아버지의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 어머니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또 한분의 부모님... 할머니!
길지 않지만 제 삶을 돌아볼 때 항상 할머니께서 옆에 계셨던 날들을 기억합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간 3월, 밤에 매우 추웠죠. 늦는다는 전화는 드렸지만 많이 걱정하실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버스에서 내리고 보니 목도리를 두르신 할머니께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군요. 제가 그때 얼마나 놀라고 죄송했는지 아세요? 잠도 못 주무시면서 손녀를 기다리시는 그 마음을 전부는 모르지만,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제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가는 잘 알고 감사하고 있어요.

지금은 눈에 띄게 나이가 드신 할머니
나를 사랑해주시는 할머니의 마음을 생각할 때 마음 한 구석이 저러웁니다.
가끔씩 만나는 친구들은 마음껏 그리워하고, 보고 싶다 사랑한다 말하지만 내 옆에 계신 할머니를 가슴 저리게 사랑하면서도 표현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이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쉼 없이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그 마음을 표현해볼 수 있는 시간이 허락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전에는 봄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미처 몰랐었는데, 한 해 한 해가 지나갈수록 피어나는 꽃들과 떨어지는 봄비가 한없이 좋아집니다. 할머니! 이번 봄이 가기 전에 제가 얘기할 때 할머니 손잡고 뒷산에 놀러 다니던 때처럼 소풍 한번 갈까요? 할머니와 손잡고 따뜻한 봄 햇살을 맞으며 새삼 용기를 내어 할머니의 귀에 속삭이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사랑합니다. 할머니..

장로후보 대상자 명단

인수집사

- 이제원(47년생) 황정욱(40년생) 박정선(45년생) 허희철(47년생) 조정식(51년생)
- 박두영(36년생) 오형철(39년생) 김영주(40년생) 김형택(43년생) 이태상(43년생)
- 나중영(43년생) 최용걸(44년생) 한길동(44년생) 류중관(44년생) 서춘식(45년생)
- 이상호(46년생) 김인수(48년생) 백수남(49년생) 이계홍(50년생) 오광환(50년생)
- 우지원(50년생) 이승우(50년생) 신용식(52년생) 최형렬(54년생) 허상한(47년생)
- 이남성(48년생) 정동호(58년생) 탁경준(42년생) 장양일(43년생) 김현영(43년생)
- 이학주(46년생) 오유식(46년생) 김중근(49년생) 김규태(53년생) 양인수(53년생)
- 송인권(56년생) 김금준(59년생) 김찬용(41년생) 윤운식(43년생) 임옥균(45년생)
- 손병석(47년생) 하인선(49년생) 최홍렬(50년생) 이태원(50년생) 최양진(53년생)
- 조철기(53년생) 윤성남(54년생) 이동만(55년생) 최치순(59년생) 이양철(61년생)

협동장로

- 전기섭(49년생) 최학인(46년생)

권사

- 유병욱(33년생) 이남북(33년생) 이금자(33년생) 한금희(34년생) 주옥환(35년생)
- 이영자(36년생) 최무순(38년생) 김용래(38년생) 최경자(39년생) 최영순(33년생)
- 고후덕(34년생) 김연옥(35년생) 고윤희(37년생) 김영연(37년생) 전배호(38년생)
- 김명숙(40년생) 윤문자(40년생) 이부자(41년생) 홍재식(42년생) 박경희(42년생)
- 김순자(43년생) 이경희(43년생) 김윤자(43년생) 권순단(45년생) 김숙자(45년생)
- 강희자(45년생) 김정희(46년생) 김예환(47년생) 강영자(47년생) 최금자(33년생)
- 한정원(33년생) 양순임(33년생) 박정원(35년생) 이순례(37년생) 이규희(37년생)
- 임순자(39년생) 남미희(39년생) 전행자(40년생) 양옥자(40년생) 허정자(41년생)
- 정봉금(41년생) 손재겸(42년생) 이영희6(42년생) 전원순(42년생) 이정자(42년생)
- 정정숙(43년생) 이은희(43년생) 윤갑숙(43년생) 최주희(44년생) 이인선(45년생)
- 최양혜(45년생) 이수자(45년생) 박정순(45년생) 전용순(46년생) 황정임(46년생)
- 이혜순(46년생) 최길옥(46년생) 박정옥(46년생) 박순자(47년생) 장낙희(47년생)
- 함은희(47년생) 전정숙(47년생) 유명석(47년생) 이은옥(47년생) 하정자(47년생)
- 박연순(48년생) 박경희(50년생) 송옥혜(35년생) 인찬희(35년생) 정연택(36년생)
- 최봉애(41년생) 전수자(41년생) 오영자(42년생) 임윤자(42년생) 이용자(42년생)
- 황보추자(42년생) 왕경희(42년생) 이민자(44년생) 선연자(47년생) 황재연(47년생)
- 채덕희(47년생) 조상희(47년생) 여영숙(47년생) 김차순(47년생) 최근자(47년생)
- 김희숙(47년생) 최일춘(48년생) 김선희(48년생) 한근석(48년생) 황노전(48년생)
- 여현진(48년생) 이영숙(48년생) 이봉규(48년생) 박영자(48년생) 한춘홍(48년생)
- 신동기(48년생) 이영희5(49년생) 김수호(49년생) 심희숙(49년생) 박명석(49년생)
- 이연숙(49년생) 권순자(49년생) 이운진(49년생) 남태순(49년생) 김윤자(49년생)
- 박운혜(49년생) 황인숙(49년생) 정현숙(49년생) 김성은(49년생) 김혜경(33년생)
- 정중순(37년생) 공진문(38년생) 권길자(43년생) 김숙행(44년생) 강애자(45년생)
- 황선희(46년생) 이승희(46년생) 이영희3(47년생) 김경옥(48년생) 장정화(48년생)
- 가원정(48년생) 백정순(48년생) 정희순(49년생) 박영옥(49년생) 이금남(49년생)
- 김명옥(49년생) 안분선(49년생) 고정숙(49년생) 김남순(50년생) 최혜순(50년생)
- 최소희(50년생) 이성애(50년생) 박 숙(50년생) 최현인(50년생) 최영란(50년생)
- 김현정(50년생) 박우옥(50년생) 이영희1(50년생) 주경자(50년생) 김영희(50년생)
- 김인숙(50년생) 최금혜(34년생) 임인숙(38년생) 이윤정(42년생) 박우주(44년생)
- 장효옥(45년생) 김희진(45년생) 김희진(46년생) 전원순(46년생) 이신정(46년생)
- 이영인(46년생) 박정섭(47년생) 방승희(47년생) 김현숙(47년생) 김경희(48년생)
- 최정순(48년생) 신현이(48년생) 이영주(48년생) 이정연(49년생) 오영숙(49년생)
- 이순희(49년생) 이인숙(50년생) 이옥희(50년생) 진경옥(50년생) 김우숙(50년생)
- 오충례(51년생) 정옥희(51년생) 박태희(51년생) 한성옥(51년생) 박창희(51년생)
- 김정운(51년생) 김명심(51년생) 김진숙(52년생) 이안순(52년생) 김복순(52년생)
- 김찬진(52년생) 장명순(52년생) 이영자(52년생)

(기수별 연령순으로 정다)

한가족 · 한마음 축제는 천국의 잔치



5월의 햇살이 눈부시게 비추던 지난 8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서울 일원동에 있는 장애인을 위한 밀알 학교에 모여 전 교인이 참여한 '2003 한가족 한마음 축제'를 열었다. "열린 교회, 화목한 가정, 섬기는 우리"라는 표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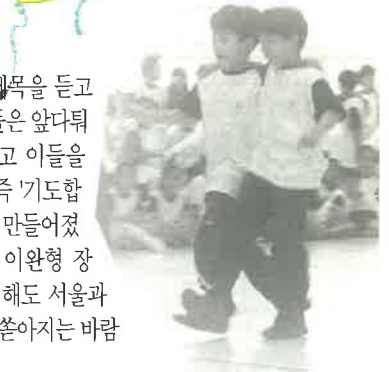
아래 열린 이번 체육행사는

교회내 13개 교구에 소속된 어린이에서부터 노년층 성도들까지 모두 천여 명의 성도들이 참가했다. 교회가 고안 제작한 청색과 백색 티셔츠를 입고 삼삼오오 짝을 지어 모여든 가족과 교구 식구들은 패기 넘치는 대학 청년부 젊은이들의 인도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축제의 문을 열었다. 당회장 이종운 목사님은 개회 예배에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축복된 이 자리에서 서로 웃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이마다 서울교회 성도됨을 감사하고 사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힘쓰라는 말씀을 전했다. 이어 열린 경기에서 청팀과 백팀 두 쪽은 큰 공굴리기, 라면박스 위로 걷기, 줄다리기 등 모두 14개 종목에 놓고 뜨거운 각축을 벌였다. 한편 이어달리기에 참가했던 박철훈 장로님의 달리기 숨씨는 올림픽 선수가 투혼을 불사르듯 최선을 다하신 그 모습에 단연 백군의 승리가 결정되었고 "우리는 하나·우리는 하나"라는 구호로 체육대회의 아름다운 하이라이트였다. 이종운 목사님은 경기도중 고르지 못한 바닥 사정으로 잠깐 넘어지기도 했으나, 앞서 달려가던 홍순복 사모의 도움으로 내외가 같이 결승점을 통과해 성도들로부터 큰 박수와 환호를 받기도 했다. 막간에 진행됐던 에바다부와 주일학교 학생들, 경로대학 노인들의 특별찬양은 행사장을 은혜의 시간으로 가득 채워 주었다.

3시간 넘게 이어졌던 경기가 끝난 뒤 준비위원들이 집계한 점수는 경기에서 백팀의 승리, 응원에서 청팀의 승리였지만 종합점수에서 청팀이 조금 앞서면서 우승기를 받을 수 있었다. 이어 열린 행운권 추첨 순서에서는 김치냉장고와 칼라TV 등 푸짐한 상품이 준비됐는데 행운권에 당첨되려면



반드시 중보기도 대상 3명으로부터 기도제목과 듣고 적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은 앞다투어 중보기도자를 찾아 만들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COP, 즉 '기도합주회'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준비위원장인 이완형 장로는 전날까지만 해도 서울과 수도권에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우려됐으나 이튿날 거짓말처럼 맑게 개는 모습을 보면서 더 좋은 환경 속에 축제를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푸짐한 기념품과 함께 사랑과 감사, 화목의 마음을 가슴에 채우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눈과 입에는 기쁨이 가득 묻어났다. 지난 93년 중앙대학교 운동장에서 처음으로 열렸던 한가족 한마음 축제는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았다. 축제가 거듭될수록 그 의미가 더욱 소중한해짐은 물론, 이제는 우리 교회가 자랑하는 또 하나의 중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김민철 (편집부)

동정

- 이종운 목사는 15일(목) 대치지역 교회연합회 모임을 소집한다.
- 특남나중진 성도, 김경연 성도 가정(7교구) 5월2일 특남
- 개업:조성열 집사, 전완순 권사 상신 부동산 개업(대치동 922-8) 556-7887
- 이사: 박창수 성도, 서현진 성도 가정(10교구) 032-347-3754
- 교회 장식용 화분 기증: 김재근 집사, 안분선 권사 가정
정수기 기증: 김태기 장로, 윤문자 권사 가정
- 금주의 식사: 김규성 집사 · 정현숙 권사
- 자녀 결혼을 감사하며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Y 106.9M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2. 23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와 열린 프로그램을 위하여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5월 25일에 있을 장로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

